

‘의정갈등 두달’ 한계 봉착 광주병원들...생존 위해 ‘협업’

전남대·조선대병원 안과 응급진료 협업...소아청소년과도 논의 중 병상가동 80%→50%대 ‘뚝’...PA·공보의 등 대체 인력에도 공백 커 종합병원 19곳 건재, 연쇄붕괴 막아...총선 여당 참패에 해법 찾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단체간 갈등이 두달째를 맞지만 뚜렷한 해결 기미 없이 과부하만 커지고 있다.

광주 지역 주요 병원은 비상 진료 체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진료과 협업 등 교육지책을 꺼내들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전남 유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지역 대표 2차 의료기관인 광주기독병원과 지역 의료체계 협력 방안을 수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응급 중증 환자의 수술과 진료에 있어서는 각 병원이 긴밀한 연락 체계 구축을 통해 전향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안과 응급 환자 진료·수술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나눠 맡기로 했다. 일주일에 이

틀은 조선대병원 권역응급센터에서 안과 진료를 전담하고 나머지 일자 진료도 두 병원이 긴밀히 협의한다.

필수 진료과지만 인력난이 심각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협업 체계 구축도 논의가 활발하다.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의 최근 병상 가동률은 각기 평균 50% 초반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두 병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각 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2월20일 집단 사직·이탈하기 앞서 지역 의료체계의 중추로서 병상 가동률이 평균 80%대 안팎이었다.

그러나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렐로우)·인턴(수련의) 신규 총원 역시 크게 밀렸고 비응급 병동 통폐합·축소 운영에 들어가면서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수술 역시 중

증 응급 환자에 국한, 대부분의 수술실이 잠정 폐쇄 상태다.

외래 환자 역시 평소와 비교해 전남대병원은 20%, 조선대병원은 10%씩 줄었다.

전문의(교수)와 진료 지원 간호사(PA) 중심으로 정부의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대체 인력까지 더해 비상진료체계를 꾸렸지만 공백은 쉽사리 메워지지 않고 있다.

수련 교육 중인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기형적인 인력 구조 탓이다.

환자 곁을 지켜온 ‘최후의 보루’ 의대 교수들마저 속속 체력적 한계에 봉착했다. 광주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 평균 근무시간이 한때 주 80시간을 넘어서기도 했다.

교수 중 일부는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채 법정 근로 시간 만큼만 근무하면서 수술 연기·취소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면서 지역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도 더욱 중요해졌다. 의정갈등 초반 일었던 연쇄 과부하 우려와 달리 광주 2차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는 안정을 되찾았다.

4월 첫째주(1~5일) 광주 소재 종합병원 19곳의 중환자 수는 평균 102명 풀이었다. 같은 주 평균적으로 비응급 입원(일반) 환자는 3823명, 외래 환자는 1만2027명이었으며 수술의 경우 249례였다.

지난달인 3월에도 한 주 평균 중환자는 100여명 안팎, 일반 환자는 3700~3800명대, 외래 환자는 1만1900명~1만4900명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에서 시행된 수술도 236~281례를 오갔다.

전공의 집단 이탈 전인 지난 2월 셋째주 종합병원들이 수용한 평균 환자 수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다.

통상 지역 종합병원 19곳이 한 주 평균 진료하는 중환자는 119명이다. 일반 환자는 4500여명, 외래환자는 1만4968명에 수술은 281례 수준이었던 만큼 의정 갈등 계기로 큰 혼란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 갈등 장기화 또는 확전의 경우에는 의료체계 연쇄 붕괴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 보건당국은 정부와 의사단체간 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사직 집단 행동까지 불사했지만 해결 기미는 여전히 없다.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에 따른 각 대학별 증원 규모만 배당 됐을 뿐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후속 대책은 담보 상태다. 최근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결과에 따른 타협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되지만 불투명하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도 2000명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의정 갈등이 극으로 치닫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한 차례 만나 대화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그러나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요인으로는 의정 갈등 출구전략 부재가 꼽히는 만큼 증원 규모 조정 또는 연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전향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형택기자

“스타벅스도 철수” 무너진 광주 충장로 상권...공실률 28%



13일 오후 과거 광주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광주 동구 충장로우체국 인근 한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호남 최대 상권’이었던 충장로 상권은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28.0%에 달하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대형 의류매장·유명 일식집도 문닫아 카카오·시너지타워 상권 살리기 협업

‘호남 최대 상권’이자 한때 ‘젊은이들의 성지’였던 광주 충장로 상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구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로 유동 인구가 줄면서 침체에 빠진 충장로는 오랜 경기침체의 여파를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2가 입구에는 2~3층짜리 건물 4곳이 줄을 지어 ‘임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었다. 충장로 상권에 들어서면 입구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이른바 ‘목 좋은’ 자리임에도 오랜 시간 공실이 장기화하고 있다.

인근 대형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거리에도 문을 닫은 상가들이 속속 늘고 있다. 광주의 한 유명 일식전문점도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끝냈다.

광주 시민들의 추억인 ‘가든백화점’ 터에 문을 열었던 와이즈파크 충장점도 경기침체의 상처를 피하지 못했다. 호남지역 최대 규모로 지난 2013년 문을 열었던 ‘H&M 와이즈파크몰’이 임대계약이 만료된 지난해 말 영업을 종료했다.

충장로에서 옷가게를 하다 폐업했다는 김모(31)씨는 “사장님 나보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가져가는 월급이 더 많았다”며 “장사를 해도 매출이자와 인건비, 임대료를 내기 벅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4분기(10~12월) 광주지역 주요 상권 10곳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7.6%로 전분기(16.4%) 대비 1.2%포인트 늘었다.

특히 강남로·충장로 상권은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28.0%에 달한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심지어 실패를 모르고 매장을 늘려나가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마저도 10년 만에 ‘광주 충장로점’을 철수했을 정도다.

광주 동구도 지역 대표 상권을 살려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상권을 되살리기에겐 벅차 보인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와 첨단지구를 핫플(핫 플레이스)로 만든 시너지타워가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충장로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될지 관심이 모은다.

동구는 최근 국내 대형 인터넷 서비스기업 카카오와 협업을 충장로 상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첨단지구를 MZ 세대의 핫플 장소로 만든 시너지타워도 먼저 손을 내밀었다. 첨단1지구 일대에 자체 브랜드인 상가를 개발해 ‘시리단길’이라 불리는 상권을 만든 노하우를 충장로 상권에 적용해 침체한 상권을 되살려 보겠다는 것이다.

동구 관계자는 “올해는 충장로 상권 르네상스 5개년 사업의 중반부를 넘어섬에 따라 더 참신한 시도를 해보겠다”며 “차별화된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발길을 끌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함평 나비 대축제

내비 찾아 떠나는 함평여행

제 26회 HAMPYONG BUTTERFLY FESTIVAL

2024. 4. 26. (금) - 5. 6. (월)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ex 한국도로공사 KOREIL 한국관광공사 (사)한국응용곤충학회